

배 포 일 시	2022. 12. 28 (수)		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안진애 (044-201-3516)
		담당자	사무관 이해인 (044-201-3517)
해외건설 협회	글로벌사업지원실	책임자	실장 김태엽 (02-3406-1044)
	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 정창구 (02-3406-1021)
	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 신동우 (02-3406-1066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제2중동북 견인, 「해외건설 수주지원단」 출범 건설, 방산, 원전, ICT, 문화 등 패키지 수출 지원 - 수출 관계부처 ·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체계 구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월 28일(수) 10시 서울에서 민관 합동 「해외건설 수주지원단」을 출범하고,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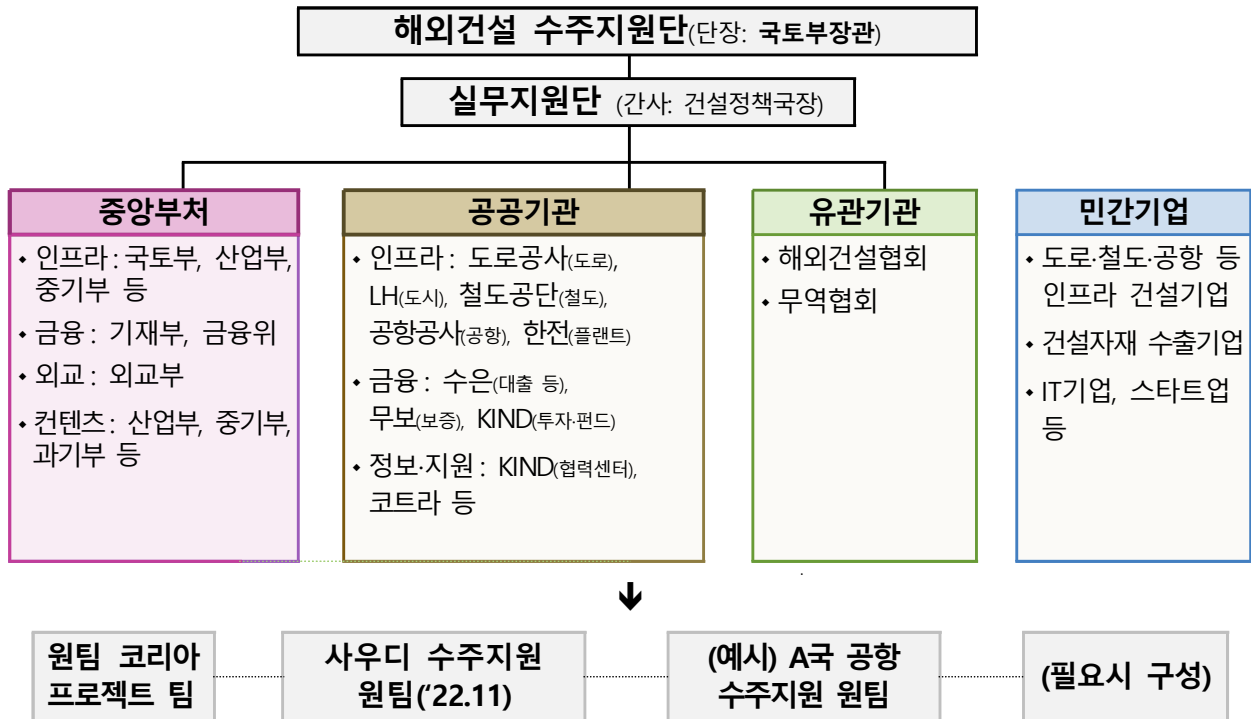
<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및 제1차회의 개요 >

- * (일시, 장소) 2022년 12월 28일(수) 10:00~11:00,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 홀
- * (참석) 국토부 장관(단장), 국방부·중기부 차관, 기재부·외교부·산업부·농식품부·환경부 실장급, 도로공사, LH, KIND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해건협, 무역협회, 현대건설, 삼성엔지니어링, 대우건설, 현대로템, 네이버, 엔젤스윙 등 민간기업

○ 「해외건설 수주지원단」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, 유관기관,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여 해외수주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패키지 수주방안 등 진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,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(8.31)에서 발표한 “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”에 따라 설치되었다.

- 향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불을 달성하고,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, 공공기관, 민간기업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외건설 수주 정책을 수립·추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.

<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 >



- (수주지원단 출범의 의미)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원팀 코리아 구성,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,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수주지원단을 출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.

- (맞춤형 “원팀 코리아” 구성)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파급효과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“주요 핵심 프로젝트”를 선정하고, 프로젝트별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사업 발굴부터 정보 제공, 민원 해소, 외교·금융 등으로 총력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.

- 지난 11월 4일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로 출정을 떠난 “사우디 원팀 코리아”는 건설기업 뿐만 아니라, IT 기업, 스마트팜, 드론·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사우디 교통부와 로드쇼를 합동 개최하여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, 이어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우리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·기업 간 총 26건의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는 등,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인 바 있다.

< “사우디 원팀 코리아” 개요 및 성과 >

- * (개요) 11.4(금) 출범 / 네옴시티, 키디야 등 공약을 위한 **제1차 프로젝트 원팀 코리아**
- 사우디 출장(11.4~9) : 사우디 에너지부·교통부·주택부 장관, 네옴 CEO 등 주요 인사 면담, 사우디 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합동 개최
- 빈살만 왕세자 방한(11.17) : 네옴시티 철도 협력, 모듈러 사업 협력 등 우리기업과 사우디 정부·기업 간 총 40조원 규모의 MOU 26건 체결

- (지역별 진출전략 마련) 또한,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와 발주처들의 수요 다각화에 힘입어 해외건설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하여,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.
- 우리나라 해외 수주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과 아시아를 양대 주력시장으로,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기회요인이 있는 중남미, 유럽·미국·호주, 고위험국을 3대 신시장으로 하여 최고위급 외교, 무상원조를 사업 수주로 연계, 정부 차원의 협력 및 정보제공 강화 등 지역별로 우선 지원할 정책을 다채롭게 제시한다.
- (기업 지원·협력 강화) 또한,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수주 지원단을 통해 사업 발굴 지원, 수주외교, 금융지원 등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진출 시 애로사항 등 민관 간 소통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- 또한, 건설 분야부터 ICT·문화·방산 기업, 자율주행·드론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탄탄한 자금력, 현지 지사와의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대기업들과,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첨단 분야의 기술력을 내세우는 새싹기업(스타트업)의 교류를 주선함으로써 우리 기업 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코로나-19 위기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이슈에도 불구하고 민·관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으로 3년 연속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면서,

- 앞으로도 우리 건설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협회 내에 “원팀코리아 지원 헬프데스크”를 설치하여 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다양한 발주정보도 연계 제공할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출범식에서 “한국은 건설, 방산, 에너지, 디지털까지 패키지로 해외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”라며,

- “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결집하여 전 산업을 함께 해외에 수출하여, 우리 기업들은 세계에서 기술력을 뽐내고 우리 국가 경제도 한 걸음 더 크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안진애 (044-201-3516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인 (044-201-3517)
해외건설 협회	글로벌사업지원실	책임자	실장	김태엽 (02-3406-1044)
	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정창구 (02-3406-1021)
	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신동우 (02-3406-1066)